

프시케 Story

발행일 2019. 12. 00
 발행처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주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교로 63번길 2
 (장전동 부산대학교 사회관 416호)
 Tel 051. 510. 1561
 Fax 051. 581. 1457
 홈페이지 psy.pusan.ac.kr
 기획·편집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MAGAZINE Vol. 12

프시케 Story

Psyche

심리학(Psychology)의 어원인 프시케(psyche)는 그리스 로마신화에 나오는 아름다운 공주 이름으로 갖은 고난을 거치고 정화된 후에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영혼의 상징이다.



프시케 Story
창간 배경

심리학과, 귀를 기울이다.

2012년 10월.
심리학과 역사상 처음으로 심리학과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심리학과 발전 계획안 및 실천 아이디어를 공모하였다.
3~5명이 한 팀을 이루어 제출된 많은 아이디어들은 현 심리학과에 존재하는 문제들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학생들의 많은 생각들을 담고 있다.

발전, 소통(疏通)으로부터

많은 아이디어들 중 과내 소식지 '프시케스토리' 팀 (황제욱.07, 정지연.10, 황해지.10)이 대상을 받았다. 이 아이디어는 최근 대학생들의 개인 주의적 분위기와 함께 심리학과 내 소통의 부재를 문제로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과내 소식지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프시케스토리'는 동기들, 선배뿐만 아니라 교수님, 대학원-학부생 간의 원활한 소통을 이끌어 낼 것이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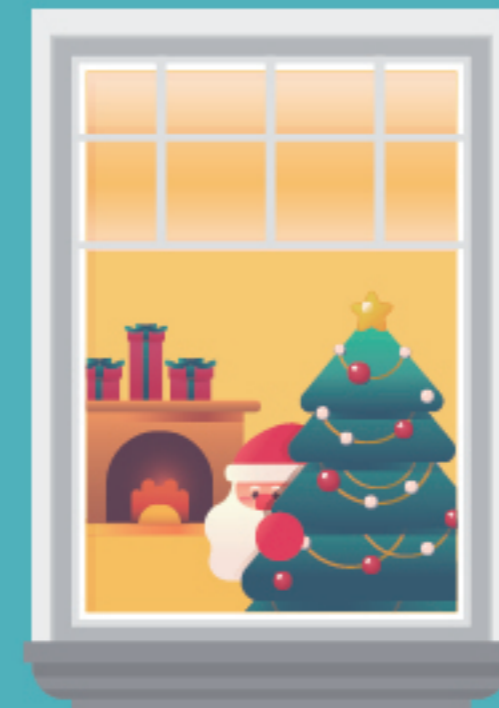
프시케 스토리?

심리학(Psychology)의 어원인 프시케(psyche)는 그리스 로마신화에 나오는 아름다운 공주의 이름으로, 갖은 고난을 거치고 정화된 후에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영혼의 상징을 의미한다.
프시케 스토리에는 학과 행사, 취업관련 정보, 수업 정보, 공지사항은 물론 교수님과의 대화, 선배들과의 대화 등 다양한 Contents로 구성되어 학과 내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새로운 장을 마련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심리학과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프시케 Story
Vol. 12

CONTENTS

- 04 청춘 우리들의 추억 그 열한 번째
- 06 입학알림단
- 08 마음챙김 긍정심리 훈련(MPPT) 워크샵
- 10 심리학과 통계 관련 학술 동아리 - R Is Well
- 12 시각 및 읽기 연구실 'Vision & Reading lab'을 소개합니다!
- 14 계량심리연구실을 소개합니다!
- 15 영화 속의 심리학 - 인사이드 아웃 (Inside Out)
- 16 허위성장애
- 18 '딱 내 이야기인데?' 당신을 속이는 '바넘효과'
- 20 Healing의 심리학 열한 번째 이야기 - 미술관에 간 심리학
- 22 Healing의 심리학 열한 번째 이야기 - 마음연구실
- 24 심리부검



청춘 11

우리들의 추억 그 열한 번째

구경모 기자 (anstjdgkrry@naver.com)



신입생 OT

2/12 신입생 OT가 진행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학과동기 선배들과 만나게 되는 신입생, 처음으로 후배들과 만나게 된 18학번 재학생 그리고 회장이 된 후 받게 된 신입생을 보게 될 마음으로 두근거릴 회장을 포함한 모두가 떨리는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날은 신입생들에게 선배들이 학교생활에 필요한 팁과 수강신청을 위한 시간표를 짜는 법 등을 가르쳐 주었고, 앞으로 1년 동안 함께 하게 될 학생회장, 부회장과 인사도 있었습니다. OT행사를 마치고는 뒷풀이로 이동해 다들 조금 더 친해지는 기회가 되었고, 앞으로 학교생활을 하면서 친해지게 될 친구들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행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복학 후 회장으로 오렌만에 새내기들 만나니 괜히 떨렸지만, 다들 잘 따라와 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신복 MT

3월30일~31일 동안 신복엠티를 다녀왔습니다. 신복엠티는 신입생, 복학생의 줄임말로 신입생과 복학생을 환영하는 의미의 엠티로 심리학과 교수님들과 함께하는 1년 중 가장 큰 행사입니다. 대학원 선배들도 와주셔서 대학원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많은 학과 선배들도 와주셔서 같이 즐기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수님들과 다함께 저녁식사를 마친 후 가장 재미있는 시간인 신입생 장기자랑과 학생회의 장기자랑 무대를 통해 다 같이 하나가 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고, 참석해준 교수님, 선배님들 그리고 모든 심리학과 친구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사회대출범식

4월4일 심리학과를 포함한 7개의 학과가 새로운 회장단들과 새로운 신입생들을 받아들였으니 함께 잘해보자는 출범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날은 사회과학대 동아리 해방도깨비의 멋진 공연과 회장, 부회장의 코스프레+장기자랑 시간까지!! 참여하지 않았으면 직관하지 못했으니 아쉬울 따름입니다. 1학년 친구들의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우리 회장, 부회장님을 부처와 예수로 만들어 버린 사회대 출범식!! 참가한 모든 친구들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년은 어떤 코스프레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안심박심 _ 학교편

5월8일은 '안'으로보는 '심'리학 '밖'으로보는 '심'리학 (안심박심) 행사가 진행 되었습니다. 1학기는 학교생활과 관련된 팁을 선배들께 듣는 행사입니다. 학생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주려 와주신 류희주 박예은 유혜원 김태은 정지윤 학우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다들 유익한 정보 받아가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생활 꿀팁을 배워간 신입생 친구 한 분을 모셔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Q1 안심박심 행사에 참여한 소감과 가장 기억에 남았던 내용은 무엇인가요?

Q2 다른 학우들에게도 추천하고 싶나요?

조연수 학생

교직이나 복수전공에 관한 설명이 인상이 깊었고, 직접 경험해본 선배들의 실질적인 입장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2학년때 복수전공이나 부전공과 같이 더 많은 수업을 들어야하고, 여러 활동을 하면서도 성적을 관리하는 노하우를 배워갈 수 있었던 점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당연히 추천을 하고 싶어요!! 선배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를 듣는다면 학교생활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꼭 물어보라고 추천해보고 싶습니다!!



심리학과 소풍

11월9일 교수님과 심리학과 학생들이 부산시민공원으로 다함께 소풍을 갔습니다. 날씨 아침에는 조금 추웠지만 그래도 점점 따뜻해져서 다들 즐겁게 게임과 산책을 하고, 교수님들과 많은 사진도 남기는 좋은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마무리는 갈비탕집에서 맛있는 점심식사!! 선배들과 교수님, 조교선생님들이 다 같이 식사를 하며 추천권을 통한 경품추천과 소풍 게임시상식까지 마무리를 하니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 재미있었고 끝나고 난 뒤에는 너무 피로가 몰려와 집가는 버스에서 잠까지 들어버렸습니다. 내년에도 또 소풍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입학알림단

누구나 고등학교 시절 진학에 대한 고민이 많지만, 실제로 대입을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에게 선택지를 조사하고, 그중 무엇을 선택할지 생각할 시간이 많지 않다. 우리 부산대학교에서는 입학알림단 <PIOOM>을 통해 고등학생들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다. '피우미(피움 단원)'는 직접 고등학교에 방문하여 자신의 전공에 대해 알려주고 미래의 후배들이 가진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심리학과에서도 18학년 유혜원 학우가 피우미로 현재 활동하고 있다. 유혜원 학우의 인터뷰를 통해 부산대학교의 피움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활동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 함께 자세히 알아보자.

최서윤 기자 (csy5435@naver.com)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심리학과 18학년 유혜원입니다. 현재 입학알림단 5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에게 심리학과와 전공 시간에 배우는 흥미로운 심리학을 소개하며 뿌듯함, 그리고 행복함을 느끼는 심리학도입니다.

Q 피움 활동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피움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부산대학교 입학알림단 PIOOM은 직접 고등학교에 찾아가서 부산대의 다양한 전공을 소개하는 전공 알림을 주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피우미와 함께 심리학과를 포함한 사회대 소속 학과를 소개합니다. 또한, 저희 피움은 입학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도 하고 있어서 '입학알림단'이라는 정식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학과에 소속된 근로장학생으로 활동할 뿐만 아니라 면접, 실기, 논술 등 입학과 관련된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학생들에게 학교 대표로서 각종 안내를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박람회에서 부산대에 오고 싶어 하는 친구들에게 상담을 해주기도 해요. 일 년 내내 다양한 일정이 있기 때문에 늘 바쁜 피움입니다.

Q 피움을 하면 얻을 수 있는, 피움만의 장점이 있을까요?

학교를 대표하는 만큼 피우미 모두가 자부심을 가지며 활동하는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실제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은 발표 경험으로 쌓은 PT 능력과 홍보물을 만들면서 길러진 디자인 능력 등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제가 피움에 지원한 이유는 단복이었지만... 지금 활동하면서 예전보다 성장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로 부터 얻는 긍정적인 에너지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모일 때마다 재미있고, 학교를 대표한다는 자부심으로 뭉쳐진 피우미와 함께 해서 정말 든든하답니다. 나머지 장점은 7기 피우미가 되어 직접 경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Q 피움 활동에 적합할 것 같은 사람이나,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무엇보다도 "불타는 열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발표도 못 했어요. 하지만, 6개월간 진행되는 교육과 다양한 경험들로 지금은 누구보다도 능숙하게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할 의지만 있다면 피우미가 되어서 뭐든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또 학교를 대표하는 활동이다 보니 애교심이 있는 친구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Q 고등학생을 접할 기회가 많으신데, 요즘 고등학생들이 심리학과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자주하는 질문, 오해하고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심리학자가 고등학생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많습니디! 흔한 학과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심리학을 배우면서 이과적인 요소가 참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에게 과학과 통계도 배운다는 이야기를 하면 '진짜 심리학과에서 그런 거 배우요?'라고 물어보며 놀라더라고요. 이럴 때 보면 진짜 우리가 배우는 심리학에 대해 더 많이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Q 마지막 질문입니다! 피움 활동을 하면서 힘들었던 일이나 보람찼던 일은 무엇인가요?

제가 지금 하는 활동이 너무 재미있고 뿌듯하고 자랑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굳이 조금 힘든 점이 있다면 전공 알림 할 때 50분 동안 학생들이 집중하도록 하면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을 다 전달해야 하는 점이에요. 체력이 좀 좋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하하). 그래도 전공 알림이 끝난 뒤에 학생들이 '정말 도움이 되었어요', '이 학과에 관심이 생겼어요' 처럼 좋은 피드백을 해 줄 때는 정말 보람차고 행복합니다. 이 맛에 피움 하나 봐요!



이렇게 피움이 하는 전반적인 활동에 대해 알아보았다. 많은 활동을 하며 지칠 법한데도 불구하고, 유혜원 피우미는 피움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가득한 반짝이는 눈으로 설명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우리 학교와 학과를 미래 고등학생 후배들에게 자세히 알려 주고 싶다면, 그리고 무언가 새로운 활동을 찾고 있는 1·2학년 학생이 있다면 입학알림단 <PIOOM>에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



부산대 심리학과 BK21 행복디자이너 양성 사업단 연구 역량 강화 워크샵

마음챙김 긍정심리 훈련(MPPT) 워크샵

2019년 무더운 8월,
행복과 성장을 추구하는 심리학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워크샵에 참석했습니다.
뜨거운 현장에서 나눈 유익한 내용들을 공유합니다!

이다고 기자 (hwangidakyo@naver.com)



김정호 교수님(덕성여대 심리학과)은 우리 심리학도들이 먼저 내면을 갈고 닦음을 즐기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심리학도에게는 ‘심리전문가’가 되겠다는 아주 좋은 욕구와 동기가 있고, 배운 것들이 나를 위해서도 쓸 수 있지만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도 쓸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MPPT의 주요목적

"마음공부(마음지식&마음기술)를 통해 지혜를 기르고,
욕구(동기)를 조화롭게 충족시켜 행복과 성장의 삶을 산다 (스트레스 ↓ 웰빙 ↑)."

마음

동기, 인지, 정서, 감각

마음지식

1. 구성주의 : 경험은 환경(밖조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안조건)을 통해 만들어 진다는 것입니다. 즉, 고통과 쾌락의 경험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만드는 것이죠. 사람의 고통은 1차적으로 일어난 문제, 2차적으로는 고통이 끝난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반추와 같이 일어난 경험에 대해 계속 저항하는 것을 뜻합니다. 누구에게나 문제는 일어날 수 있지만, 일어난 고통에 대해 부적절한 기술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2차적 고통은 내가 만드는 것이기에 이를 멈출 것을 당부합니다.

2. 동기상태이론 : 동기좌절상태이거나 동기가 좌절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가 ‘스트레스’ 동기가 충족된 상태나 동기가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가 ‘웰빙’이라는 이론입니다. 우리는 취약한 동기를 선택하지 않고, 건강한 동기를 가지는데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성취보다는 성장과 관계, 회피동기 보다는 접근 동기를, 외재동기 보다는 내재동기를 더 많은 비율로 취하는 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3. 정보처리용량 제한 : 한 번에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정신자원의 용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긍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가지게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정서는 우선순위에 밀려나게 됩니다. 긍정적인 정서 처리가 되지 않는 부정적 정서상태 일 때는 판단하지 말고 후퇴해서 긍정적인 정서로 바꾸는 것을 권장합니다. 긍정적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생각, 활동을 통해 평상심을 회복한 후에 결정하세요! 자신의 감정을 ‘중계방송’ 하듯이 말하면 평상심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예: ‘이건 화가 난거야’ ‘화다!’)

4. 마음사회관점 : 마음은 여러 ‘나’들이 사는 사회입니다. 내 안에 여러 ‘나’들이 있음을 받아들이고, 서로 억압하지 않고 용서·허용함으로써 내에 대한 이해가 변화됩니다. 타인에게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이해하고 위로해 주지만, 정작 나에게서는 용납을 해주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이런 나’ ‘저런 나’ 모두가 살 수 있음을 받아들이고 자비롭게 나를 바라봐 주는 것을 권장합니다. 나의 마음이 사회인 것처럼, 상대의 마음도 사회가 있음을 알면 다양한 상황에서도 상대를 이해하고 공존할 수 있습니다.

마음기술

1. 마음 챙김 :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 지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자각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좋고 싫음을 떠나 그저 관찰합니다. 마음 챙김을 하게 되면, ‘경험≠나’가 됩니다. 관찰할 수 있다면 그것은 모두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나’는 경험을 담는 그릇이 되어 인내심과 평정심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정서들은 반응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면 이내 소거됩니다.

2. 명상 : 주의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특정한 대상에 주의를 집중하면서(ex : 호흡, 물체, 소리) 욕구와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생각과 감정을 쉬고 멈추어 내려놓으면, 감각에 친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를 집중하거나 혹은 주의를 거두는 방식을 통해 전환이 자유로워지면, 고요한 휴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완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3. 긍정심리 : 좌절된 욕구에 초점을 둔 기존 심리학과 달리, 긍정심리에서는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동기를 발굴합니다. 문제를 문제시 하지 않고,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동기’를 스스로 찾을 수 있게 돕습니다. 관점의 전환을 통해 약점 또한 강점으로 재인식 될 수 있음을 알고, 환경(밖조건)이 모두 ‘그럴 수 있다’ ‘별일이 아니다’라고 인지합니다. 또한 자비 수행을 통해 자기 자신과 타인까지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겪고 있는 고통으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라게 됩니다.

UP & DOWN. 하루에도 여러 번, 한 달, 일 년, 평생에 걸쳐 삶에는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습니다. 고통을 겪는 것이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인 상태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삶은 훨씬 심플해지고 덜 스트레스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에 집착하기보다, 건강한 동기에 초점을 맞춰 행복한 심리학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성장하기를!

워크샵의 자세한 내용이 더 궁금하시면 메일로 연락주세요 :)

알이즈웰 동아리 인터뷰

학문에 대한 열정과 지식에 대한 열망 하나로 창립되어, 지금은 탄탄한 학술 동아리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심리학과 유일의 통계 관련 학술 동아리, 'R Is Well'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해보았다.

오한별 기자 <hanbeul406@naver.com>

반갑습니다.
우선 동아리 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도 1학기에 정식으로 활동을 시작한 심리학과 통계학술동아리 R Is Well의 회장을 맡고 있는 14학년 이현우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심리학을 위한 연구방법론과 통계분석을 함께 공부하고, 대학원 진학이나 관련 분야의 취업을 목표로 활동하는 동아리입니다. 동아리 이름인 R Is Well은 두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부 과정에서 반드시 익혀야 하는 통계 프로그래밍 언어 'R'이 낯설고 어렵더라도 사실 더 좋은(Well) 방법이니깐 열심히 배워 나가자는 뜻. 그리고 두 번째는 동음의 영화 제목처럼, 통계학 공부를 언젠가 해야 하는 학부생들에게 함께 공부하면 다 괜찮아질 거라는(All Is Well) 뜻입니다. (이현우)

R Is Well



알이즈웰은 새로 만들어진 동아리라고 알고 있는데, 동아리를 만들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2017년에 사회조사분석사 2급 스테디로 처음 만났던 저희는 심리 통계 과목으로 배우는 것만으로 연구방법론에서 요구하는 통계 지식 수준에 도달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성원 모두가 시험에 합격한 후에도 활동을 이어갔고, 목표로 했던 연구방법론 강의에서는 조별과제를 같이 수행하여 모두 좋은 성적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다들 학부를 졸업할 때가 되어서,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학과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동아리 형태가 좋겠다는 데 생각을 모았습니다. 조승빈 교수님께서선 선뜻 지도교수를 맡아주시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2019년도 1학기부터 심리학과 정식 동아리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현우)

주로 하는 활동과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저희 동아리에서는 학기당 1-2회의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고, 학과가 주최하거나 학과의 이름으로 참가하는 학술제에 매년 1팀 이상 동아리의 이름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리학과 내 통계 분야 커뮤니티의 역할도 하고 있어, 자유 스터디 및 공모전 팀 구성, 외부 동아리와의 연계 문의, 학과 내외부의 연구 참여자 모집 경로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동아리 창설멤버의 대부분이 대학원 진학을 확정했거나 고려하고 있는 만큼, 해가 갈수록 학부와 대학원 사이의 소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리통계에 익숙하지 않은 신입 부원들을 위해 기초통계학 스테디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팀 R Is Well의 기초통계학 교재와, 자격증 보유자 혹은 학부생 인턴 중인 선배 부원을 강사로 하는 강의 형태로 운영하여, 새롭게 통계학을 시작하려 하시는 분도 부담 없이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현우)



동아리 창립 이후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셨다고 들었는데,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으신가요?

up 학술제를 준비했던 때가 생각납니다. 당시에 연구 방법론 수업을 듣는 동아리원들이 많아서 둘 이상의 실험 설계에 참여해야만 했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지쳤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심리학과 통계를 공부하고 있는 학부생의 입장에서 실험을 설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렇게 공을 들여 나간 학술제가 서로의 학술적 발전보다는 친목 도모에 더 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동아리원들이 큰 실망감에 빠졌던 기억도 납니다. 하지만 이런 활동이 쌓여서 저희 동아리가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때까지 공부한 지식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고 무엇이 저희의 강점인지, 그리고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학술제나 공모전에 참여하다 대학원을 목표로 하는 동아리원도 생겼고요. (윤영준)

알이즈웰만의 장점이 있다면?

주로 학술제를 준비하며 직접 연구를 해보는데, 이는 심리학 전공 과목 중 <연구설계 및 실습> 과목의 조별과제와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알이즈웰 활동을 하면서 이 과목도 동시에 수강했는데, 같이 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선배들과 동아리에서 활동을 해 보았기 때문에 수업의 조별과제도 한층 쉽게 느껴졌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선배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었습니다. (하주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알이즈웰은 단순히 공부하는 동아리가 아니라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심리학과 학생들이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하주연)

이제 곧 선배들이 졸업을 하게 될 텐데, 새로 들어온 동아리원들이 공모전이나 학술제 등에 함께 참여해,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함으로써 후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아리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경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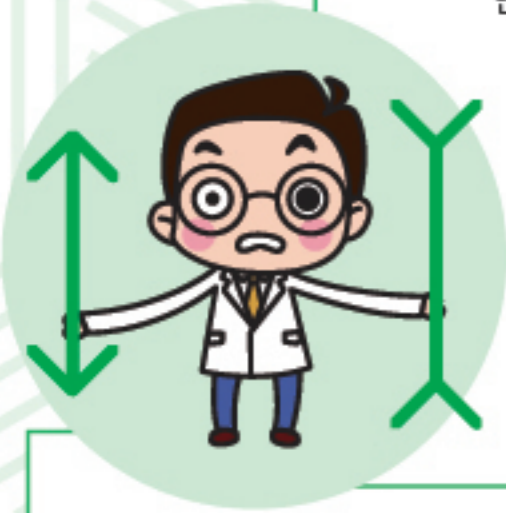
심리학에서 통계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도 동아리가 잘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후배로서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미현)



시각 및 읽기 연구실 Vision & Reading lab 을 소개합니다

이수현 기자 <mh2154@naver.com>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시각및읽기연구실은 주성준 교수님을 중심으로 두 명의 대학원생과 네 명의 학부 연구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 9월 주성준 교수님의 부임으로 시작된 신생 연구실입니다. 저희는 정신물리학적 기법을 이용한 행동 실험과 신경 영상(fMRI, EEG & MEG) 측정방법을 이용하여 시지각과 인지의 신경 기반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은 사회관 504-1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실험은 제10공학관 B10109호 심리학과 실험 실습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험을 위한 장비는 정신 물리학 실험을 할 수 있는 PC와 3D 프로젝터 그리고 VR, AR 기기 등을 가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EEG 장비를 구비할 예정입니다. 우리 연구실의 연구주제는 3차원 시지각과 움직임 지각(3D vision & Motion), 읽기와 난독증(Reading & Dyslexia) 그리고 패턴 지각(Pattern perception) 등 큰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중인 과제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3차원 시지각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가상현실 기반의 약시 치료법입니다. 약시 치료법 중의 하나인 차폐법을 기반으로 저희 연구실에서는 가상 현실을 이용해 아동들이 쉽고 재미있게 약시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자 연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증강현실 (AR) 디스플레이 화질 최적화를 위한 깊이 지각 모델 개발이 있습니다. 증강 현실 환경에 있는 가상의 물체에 대한 3차원 깊이(거리) 지각의 연구를 바탕으로 가상의 물체를 정확한 3차원 깊이에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인의 언어적, 비언어적 감정표현 특성 분석을 위한 감정표현의 정서인식 및 정서조절 기능 연구입니다. 이동훈 교수님께서 지도하시는 언어심리 연구실과의 공동연구로 한국인의 정서 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자 관심 주제를 바탕으로 열심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시각 및 읽기 연구실을 구성하고 있는 학생들은 어떤 관심사를 갖고 공부하고 있을까요?

대학원생 이수현

저의 관심분야는 착시와 크기 지각입니다. 크기를 지각하는 것은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도 연결되는 중요한 능력입니다. 우리는 실제 거리가 없는 평면의 그림에서도 단서들을 통해 거리가 있는 것처럼 지각할 수 있습니다. 거리감을 느끼게 되면 멀리 보이는 물체는 가까이 있는 물체보다 상대적으로 커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착시 현상은 우리가 물체를 망막에 맺힌 물리적 크기가 아닌 맥락에 의해 영향을 받아 크기를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지각적 현상이 어떤 신경 기반으로 일어나는지 몰음을 갖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부연구생 정윤지

저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심리학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특히 프로그래밍 자체와 지각에 관심이 많아 이에 대해 가장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한 시각및읽기 연구실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관심분야는 크기지각으로, 세상의 다양한 사물을 어떻게 지각하는지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학부연구생 정영진

저는 “본다는 것”에 관심이 있어 학부 연구생을 하고 있습니다. “본다”라는 건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 생각했지만 공부하면 할수록 너무나 복잡하고 경이롭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현재는 크기의 평균표상에 관한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생 이주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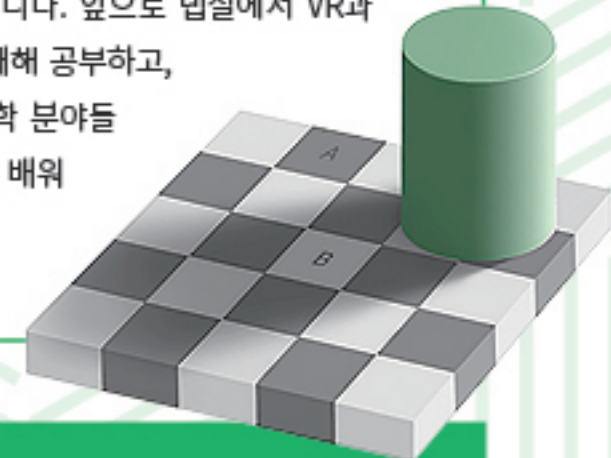
저의 관심분야는 증강 현실 환경에서의 깊이 지각입니다. 증강 현실 기술은 날이 발전하고 있지만, 그 환경 속에서 인간이 물체를 정확히 지각하는지는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그 중 증강 현실에서의 깊이 지각은 왜곡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왜곡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부연구생 윤영준

저는 인간의 지각 및 인지 과정과 관련된 신경적 기저에 관심이 있습니다. 특히 시각과 관련하여 우리가 보는 세상이 어떻게 처리되고 표상되는지, 그리고 글 읽기나 얼굴 표정 지각과 같이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각 처리 과정이 뇌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연구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정서 시각탐색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부연구생 김경윤

저는 스마트폰을 이을 차세대 기술인 VR과 AR에 관심이 있습니다. 매년 VR과 AR 사용자가 늘고 있는 추세이고, 다양한 글로벌 기업에서도 주목하고 있으며, VR과 AR의 발전으로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랩실에서 VR과 AR의 보다 나은 시지각 개선에 대해 공부하고, 또 이 것 이외의 다른 지각 심리학 분야들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알아보고, 배워가고 싶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해보면 연구실과 연구실 세팅 등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항상 학생들의 발전을 고민하시는 교수님께서 일방적 전달보다는 소통을 해주시고, 학생들 역시 교수님을 존경하고 잘 따르는 덕분에 즐거운 한 해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덧붙여 연구실 홈페이지는 <https://sites.google.com/view/viscog> 입니다. 저희 연구실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량심리연구실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번 년도에 새로 개설된 계량심리연구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소 생소한 전공이라 학생들의 궁금증이 많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조승빈 교수님을 인터뷰해보았습니다!

조동민 기자 <deepmind@pusan.ac.kr>



Q 생소할 수도 있는 계량심리학, 어떤 학문인가요?

계량심리학은 Quantitative Psychology를 번역한 것입니다. Quantitative는 “양적”이라는 뜻을 가지는데 대부분의 심리학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관찰이 불가능한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기 위해 심리적 특성을 분석 가능한 숫자로 바꾸는 수량화(quantify) 과정이 필요합니다. 계량심리학은 기본적으로 심리적 특성의 수량화와 수량화된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학문입니다. 따라서 측정과 평가는 계량심리학의 핵심적인 주제이며 양적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의 개발과 적용도 계량심리학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Q 교수님은 지금까지 어떤 연구를 해오셨나요?

저는 대학원에서 잠재변인모형과 이를 활용한 행동유전학모형, 종단자료 분석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주제를 바탕으로 집단 간 차이 또는 시간에 따른 변화에 대한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추정하는 모형이 학위논문의 주제였습니다. 졸업 후 부산대학교 심리학과에 부임하기 전까지 Virginia Institute for Psychiatric and Behavioral Genetics와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심리학과에서 주로 알코올을 비롯한 약물 중독의 발생에 대한 유전적, 환경적 요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Q 현재 진행중인 연구와 앞으로 진행하실 연구 주제는 무엇인가요?

개인적으로는 이전부터 함께 일하던 동료들과 함께 음주에 대한 유전적 소인과 환경적 영향 간의 상호작용과 외상장애와 흡연 간의 관계에 대한 종단연구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 계량심리학 연구실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머신러닝으로 대표되는 자료주도적 접근과 우리에게 익숙한 이론주도적 접근 간의 접점을 찾는 데 관심이 있으며 현재 대학원생들과 함께 관련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그 결과를 토대로 알코올중독을 비롯한 장애에 대한 위험점수 개발에도 관심이 있으며 여건이 된다면 이전부터 해 왔던 종단연구와 행동유전학 연구도 이어가고 싶습니다.

Q 계량심리학을 전공하면 어떤 분야로 진출할 수 있나요?

계량심리학의 지식으로 진출할 수 있는 분야로는 교육과 평가, 조사 및 리서치, 각종 분야의 연구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ETS와 같은 측정/평가 회사나 기관은 계량심리학 전공자들의 대표적인 진출 분야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리학의 지식과 고등통계기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곳이면 어느 분야든 전공자들의 좋은 목표가 될 수 있으며 실제로 미국의 경우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의 채용광고에서 quantitative psychology를 흔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최근 들어 정책이나 의사 결정에 있어 수량적 증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계량심리학적 지식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Q 마지막으로 계량심리학을 전공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의 경험과 트레이닝에 비추어 본다면 통계학이나 수학에 관한 기본지식을 미리 갖추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전공의 특성 상 수리통계학, 다변량분석, 선형모형 등의 과목들이 학위과정을 마치기 위한 트레이닝의 일부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식을 적용할 심리학의 다른 분야들에 대한 이해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이를 통해 비판적 사고능력을 기르고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국내에는 심리학의 다른 분야에 비해 전공자가 많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외국으로 유학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계량심리학에 대해 궁금한 학생들은 언제든지 계량심리학 연구실을 방문하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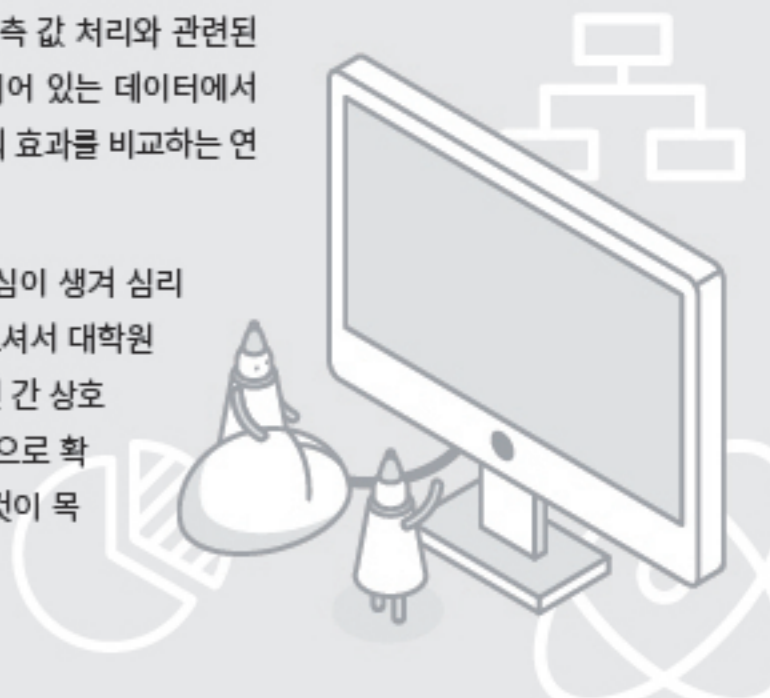
Q 이상으로 교수님에 대한 인터뷰를 마치고 연구실의 학생들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Q 지원 동기와 현재 진행중인 연구에 대해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권도희, 인턴 본래 통계에 관심이 많아 통계학과 부전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학과에도 계량과 관련된 전공이 생긴다고 하여 교수님과 면담 후 인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물질사용 장애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들에 대한 탐색과 같은 데이터 기반 정신의학 진단기준 설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리통계학이나 다른 통계모델에 대한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석사과정 머신 러닝을 바탕으로 한 도박 중독 위험도 분류모델 생성,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효과적인 전 처리 방법 등에 관심이 있어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데이터 전 처리 과정 중 하나인 결측 값 처리와 관련된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연속 변인과 불연속 변인이 혼재되어 있는 데이터에서 결측 값이 발생했을 때, 결측 유형과 혼재 형태에 따라 대체 방법들 간 결측값 대체의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민, 석사과정 통계에 관심이 많아 관련된 스터디를 하던 중 머신러닝에 관심이 생겨 심리학 영역에 적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교수님 또한 해당 문제에 관심이 있으셔서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의사결정나무기법(Decision Tree)을 활용하여 변인 간 상호작용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 중입니다. 의사결정나무는 모델 결과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이러한 장점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인사이드 아웃 (Inside Out, 2015)

픽사(PIXAR) / 애니메이션, 코미디 / 2015.07.09. 개봉 / 102분 / 미국 / 전체 관람가 / 피트 닥터 감독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혹시 상상해 본 적이 있는가? 여기, 11살 한 소녀의 이야기를 통해 바라본 내면세계는 다채롭고 새롭다. 한편으론, 우리가 공부하는 심리학적 개념들이 귀엽게 녹아들어 친숙함이 느껴진다. 영화를 보던 도중 문득 정신을 차린다면, 은은한 미소를 짓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된다.

박성인 기자 (sown02@gmail.com)



즐거리

이 영화는 미네소타에서 살던 11살 소녀 라일리가 샌프란시스코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라일리의 내면세계 속 본부에는 기쁨, 슬픔, 버럭, 까칠, 소심의 다섯 감정이 라일리의 행동에 감정을 칠하고, 이를 통해 라일리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기쁘고, 슬프고, 화나고, 새침하고, 소심한 기억 구슬들을 형성하며 성장해 나간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다르게 더욱 의기소침해 보이고 특이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 슬픔이는 라일리의 인격을 형성하며 기쁨으로 가득 찬 핵심 기억들을 만져보려 한다. 그러나 사고로 핵심기억의 작동이 멈추게 되고 슬픔이는 기쁨이와 함께 본부에서 기억 구슬을 저장하는 장기기억으로 이동하게 된다. 핵심기억의 부재로 인격의 색채를 잃은 라일리는 샌프란시스코 생활의 시작을 빼적거리며 시작하게 된다.

가족과 친구와 학교, 그리고 또 좋아하는 하키 경기에서 빼적거리게 된 라일리를 되돌리기 위해 기쁨이와 슬픔이는 함께 본부로 돌아갈 방법을 찾는다. 장기기억을 하염없이 헤매던 둘은 라일리의 어릴 적 상상친구인 코끼리 코 빙봉을 만나게 되고 빙봉은 기쁨이와 슬픔이 본부로 돌아가 핵심기억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던 중, 본부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던 기쁨이가 없자 남아있던 버럭이, 까칠이, 소심이 세 감정은 기쁨의 역할을 자처하고 나서지만, 본의 아니게 라일리의 행동을 버럭하고 까칠하고 소심하게 만들게 된다. 이런 라일리의 감정표현은 가족과 친구에게, 그리고 학교와 하키경기에서 좋지 못한 영향을 주게 되고 외부와 갈등을 겪는 라일리의 내면은 점점 고장 나고 부수어지기 시작한다.

기쁨이와 슬픔이는 다시 본부로 돌아가 라일리를 다시 밝고 명랑한 소녀로 되돌릴 수 있을까?



감정은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 성장할까?

본부에서는 다섯 감정이 안내서에 따라 라일리의 감정을 조절한다. 기쁨, 슬픔, 버럭, 까칠, 소심은 라일리 감정 컨트롤러의 버튼을 눌러 라일리의 행동에 감정을 더한다. 감정을 조절하는 이 다섯 감정은 독특하게도 개인에 따라 주도하는 감정이 다르며, 개인의 연령에 따라 서로 협응하는 모습이 다르다. 라일리에게는 기쁨이 감정 중 리더의 역할을 하며 라일리를 밝은 성격으로 채운다. 라일리의 엄마와 아빠는 각각 슬픔이와 버럭이가 리더로 나오며 그에 걸맞은 성격을 보여준다. 또 11살인 라일리의 감정들은 11살처럼 다양하고 자유분방한 아이디어를 서로 이야기하는 반면, 어른인 엄마와 아빠의 감정들은 체계적으로 협응한다. 이는 정서와 성격의 발달적 양상을 창의적으로 보여준다. 자신을 되돌아보고 한층 성장하는 라일리의 모습을 함께 지켜보며 이를 느낄 수 있길 바란다. 참, 라일리의 행동에 대한 엄마와 아빠의 대처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볼 수 있는 식사장면도 유쾌한 관람 포인트로 추천한다.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고 생각하는 걸까?

하나의 경험이 동그란 구슬 모양의 기억으로 남고 이 기억에는 그 당시 경험한 감정의 색상이 묻는다. 이는 기억이 형성될 때마다 즉각적으로 본부에 보관되며, 잠을 자게 되면 본부에 쌓인 기억들은 장기기억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곳에선 동그란 일꾼들이 기억 구슬을 정리하고, 또 희미해진 기억 구슬들을 기억의 쓰레기장으로 보내 망각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이는 수면 상태에서 새로 경험한 기억들을 체계화하고 과거 기억을 망각하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다. 감각기억과 작업기억의 부재는 아쉽지만, 적어도 우리가 경험한 일들을 선별하고, 정리하고, 기억하는 인지 과정을 모든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그리고 여기에서 빼놓기 어려운 관람 포인트는, 갑작스럽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광고나 노래가 어째서 불필요한 상황에서 떠오르는지 한 번쯤 눈여겨본다면, 귀여운 친구들의 장난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생각 열차는 라일리가 깨어있을 때, 상황에 따라 필요한 기억들을 본부로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사고과정을 기차로 표현하다니, 픽사의 상상력에 감탄하고 말았다. 기차가 지나다니는 철도는 우리가 익히 아는 뉴런의 수초일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정의할까?

기억 구슬 중에서도 가장 밝게 빛나는 핵심기억들은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서 만들어진다. 이 기억들은 장기기억으로 이동되지 않고 본부에 남아 라일리의 인격을 형성하는 주된 역할을 한다. 라일리에겐 각각 가족에 대해 기뻐던 핵심기억, 우정에 대해 기뻐던 핵심기억, 정직하여 기뻐던 핵심기억, 하키에 대해 기뻐던 핵심기억, 엉뚱한 장난에 대해 기뻐던 핵심기억이 존재한다. 이들은 각각의 인격의 섬을 형성하는 토대가 되어 라일리가 가족, 우정, 하키, 정직함, 엉뚱한 장난을 바라보고 표현하는 기준이 된다. 인격의 섬은 관련 경험을 통해 확장되거나 고장이 나기도 하며 라일리를 형성하는 자기개념의 일부가 된다. 이 부분이 본 영화 즐거리의 큰 즐거이므로, 항상 조마조마하게 바라보게 되는 포인트!

총평

개봉한 시기도 조금 되었고 이미 많은 사람이 관람했을 만큼 유명한 영화다. 단순히 소소하게 애니메이션으로 바라본 이 영화는 가슴 뭉클한 가족애를 다룬 한 편의 잘 만든 영화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심리학에서 다루는 많은 개념이 꽤 섬세하게 들어가 있다는 사실! 이 글에선 모두 소개해주지 못한다는 것이 정말 아쉽다. 이 글을 읽고 난 다음엔 집에서 이 영화를 찾아보며 또 다른 심리학적 요소들을 찾아보는 재미를 느껴보는 건 어떨까.

허위성장애

황수정 기자 (akgkf0565@naver.com)

세계 최고의 기록을 모아 해마다 발간하는 책인 기네스북에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사실들과 기록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누군가에게 명예로울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듯합니다. '윌리엄 맥로이'라는 영국인이 그러한 사람 중 한 명으로 병에 걸린 척 꾸며내어 쓸모없는 의학적 치료를 받는 분야였습니다. 1993년 발행된 기네스북에 따르면 그는 1983년 요양원에서 사망하기 전까지 무려 100개 이상의 병원에서 400회 이상의 수술을 받았으며, 진료비로만 400만 달러 이상을 의료보험공단에 부담시켰습니다. 그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22개의 가명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자신의 건강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여러 의료시설과 공단의 경제적, 인적 손실을 가져온 듯 보입니다.

그는 '윈하우젠 증후군'이라고 알려진 허위성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장애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까요?

Munchausen

우선 '윈하우젠'이라는 이름이 특이하다고 생각하실 것이라 예상합니다. 이 병명의 어원은 18세기 독일의 군인이자 관료였던 '폰 윈하우젠 남작'은 자신이 모험하지 않은 일들을 자신이 경험한 일이라고 주장하며 사람들을 속이고 관심을 끌었고 이 모험담이 인기를 끌면서 '허풍쟁이 윈하우젠 남작의 놀라운 모험'이라는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이후 영국의 정신과 의사인 '리처드 애서'가 이 책의 이름을 따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는 허위성장애에 이름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허위성장애'란 환자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신체적 또는 심리적 증상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내거나 위장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증상으로 인하여 아무런 현실적인 이득이 없음이 분명하며, 다만 환자 역할을 하려는 심리적 욕구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될 때 이러한 진단이 내려집니다.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 제5판(DSM-5)에 따르면 허위성장애의 세부진단기준은 스스로에게 부여된 인위성장애와 타인에게 부여된 인위성 장애로 나뉘게 됩니다. 이 기준 간의 차이점은 전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표현 하는 것이며, 후자는 제 3자(피해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허위성 장애는 피병과 흔히 구분 되는데 피병은 의도적으로 증상을 만들거나 과장하지만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은 당장은 위장 될 수 있지만 오래가지 않아 밝혀지며, 전문가의 안목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현실적 목적이 추측될 수 있습니다. 반면, 허위성 장애에서는 환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현실적 이득이나 목적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원인과 치료방법은 다른 장애에 비해 연구자료가 부족하여 명확히 말할 수 는 없지만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가 나타내는 증상을 허위성장애로 빨리 인식함으로써 환자가 고통스럽고 위험한 진단절차를 밟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하여 심리 치료 등을 사용한다면 환자가 자신의 허위 증상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치료에서 가장 핵심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윈하우젠 증후군'과 유사한 점이 많은 '리플리 증후군'은 '윈하우젠 증후군'과 동일하게 '거짓말' 이 주 증상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헛갈릴 가능성도 있으나 두 장애는 거짓말의 내용에서 차이점을 보입니다.

우선 '리플리 증후군'은 성취욕구가 강한 무능력한 개인이 마음속으로 강렬하게 원하는 것을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사회구조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가장 많이 발생하며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어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시달리다가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이를 진실로 믿고 행동하는 것으로 이 장애를 잘 설명하는 실제 사례는 1990년 홍순영 유괴 살인사건으로 자신이 명문대 출신에 방송국 기자라고 주변인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남자친구라고 속여 왔지만 경찰 수사 결과,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며 논란을 일었던 사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여 윈하우젠 증후군은 앞서 말한 증상들이 주로 나타나는 장애로 실제사례로는 온라인에서 주목을 끌기위해 5살난 아들에게 수년동안 치사량의 소금을 주입해 결국 살해한 미국 20대 여성을 예시로 들 수 있는데 그녀는 의사에게 자신의 아들이 음식을 삼키지 못한다고 주장해 갓난아기때부터 영양공급용 관을 연결해 소금을 주입했고 인터넷 블로그를 운영하던 스피어스는 자신의 아들이 아픈것처럼 꾸며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기위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혀졌습니다.

위 사례들을 통해서 두 장애 모두 우리에게 흔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사회 속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낳으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윈하우젠 증후군은 사람들의 관심을 잘못된 방식으로 끌려고 하는 것으로 개인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고 동시에 우리는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며 관심과 사랑이 한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느낄 수 있을것입니다. 점점 추워져 가는 사회 속,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누는 일이 개인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작은 발걸음에서 시작해 큰 변화를 이룩하길 바랍니다.



딱 내 이야기인데? 당신을 속이는 바넘효과

이고은 기자 <pobbyjr@naver.com>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높이 평가받을 필요가 있지만, 스스로에게는 비판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성격에 나약한 측면이 있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하지 않은, 익숙하지 않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당신은 훈련되어 있고 자신감에 차 있지만, 당신의 내면은 주저와 망설임으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종종 당신의 행동이나 말이 잘못되었을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의심이 당신을 공격합니다.”

위 설명은 당신을 얼마나 잘 설명한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이 쉽게 믿는 점괘 속 숨겨진 비밀,
바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자.

19세기 서커스의 선구자이자 마케팅 천재로 불리던 피니어스 테일러 바넘(Phineas Taylor Barnum)은 당시 사람들의 성격을 잘 맞추는 것으로 주목을 받았다. 사람들은 그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 그는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이 자신의 전략이라고 밝혔다. 그가 말한 문구가 뜻하는 바는 무엇이였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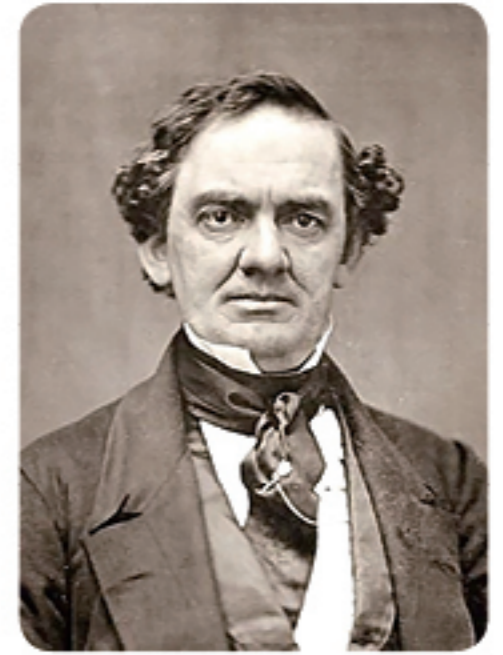
이후 1940년대 말, 심리학자 버트럼 포러(Bertram Forer)가 성격진단실험을 통해 최초로 바넘의 전략을 증명해 보였다. 포러는 몇가지 물음을 통해 학생들의 성격을 진단해주고, 그들에게 포러의 진단이 얼마나 들어맞는지 0점(대체로 정확하지 않음)부터 5점(아주 정확함)까지의 척도로 평가하도록 했다.



그러자 학생들은 무려 평균 4점이 넘는 점수를 주며 진단이 자신에게 매우 잘 들어맞는다고 평가하였는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포러가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진단을 내려주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 그 비밀은 바넘과 동일한 시사점을 가진다. 바넘과 포러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매우 일반적이고 모호한 피드백을 전달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심리적 특징을 자신만의 특성으로 여기는 심리적 경향’이라고 정의하며, 바넘 혹은 포러의 이름을 따서 ‘바넘효과 (포러 효과)’라고 한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어렵지 않게 바넘효과를 경험하곤 하는데, 대표적으로 점이나 운세 등 미래를 예언하는 점괘에 대한 믿음이 그러하다. 흔히 위와 같은 점괘는 성격이 전혀 다른 사람들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호한 설명을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묘사가 나 자신에게만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왜 그럴까? 이는 우리가 점쟁이, 예언가 등의 말을 정확하다고 믿으며, 그 의미가 일반적이고 모호하거나 때로는 모순적인 곳에서도 스스로를 위해 의미를 찾으려는 경향 같은 총체적인 심리적 메커니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사람들은 스스로 모호한 점괘를 재해석하고, 이를 과거의 수많은 경험 중 하나와 연계하여 믿음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판단을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그러한 판단이 자신에게만 적용된다고 생각하면서 진실이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타로 카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타로 카드가 나 자신만을 반영해 주길 기대하지만, 실제로 78장의 타로 카드 속에는 인간 삶의 모든 가능성이 담겨있다. 그러한 타로 카드로 예언을 끌어내는 방법은 무한하며, 당연히 임의적인 설명으로 나타난다. 또한 타로 점을 치는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 자신의 ‘직관’을 필연적으로 신뢰한다는 점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피니어스 테일러 바넘
(Phineas Taylor Barn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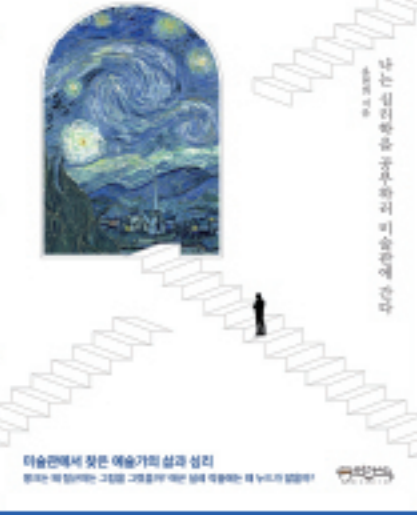
또 다른 예시로 혈액형에 따른 성격 분류를 들 수 있다. A형은 소심하고, B형은 대담하며, O형은 쾌활하고, AB형은 이성적이라는 등의 설명은 한때 한국과 일본에 큰 인기를 끌었으며, 아직까지도 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대하며, 바넘효과가 적용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바넘효과는 정치나 마케팅에서도 잘 이용된다. 정치인들은 겉으로 보기에 유일무이하고 무한한 자원이인 창의적인 국민을 내세운 캠페인을 통해 국가적 민족적 자존심을 달래 주는 전략을 사용한다. 또한 우리가 흔히 접하는 ‘내가 가치 있기 때문이다.’와 같은 광고 문구는 사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이지만, 우리 각자에게 큰 감명을 주곤 한다.

우리는 이러한 바넘효과의 영향력을 인식하고, 어느정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각종 운세나 점괘는 온라인,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이를 두고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과학계 의존하거나 그것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주식이나 재테크, 보험 상담 등의 투자 전략들이 특별히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라는 점을 알고 있는 것도 현혹되지 않고 더 나은 판단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Healing의 심리학 열한 번째 이야기 Part. 1

미술관에 간 심리학



미술관에 간 심리학

저자: 윤현희 박사

화가들에게 그림은 자신의 상처, 사랑, 혹은 자기 표현의 도구로서 단순히 그림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명작'이라 불리며 한 세기가 넘도록 회자되는 작품들에 사람들은 감탄하기도, 공감하기도, 또 위안을 얻기도 한다. 정적인 그림이 어떻게 생기를 갖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힘을 가질까? 임상 심리학자인 윤현희 박사는 『미술관에 간 심리학』에서 여러 화가들의 인생과 그들의 작품을 소개하고 그것이 가지는 심리학적 함의를 현대의 삶과 연관 지어 해석한다. 지금부터 『미술관에 간 심리학』의 저자인 윤현희 박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심리학과 예술의 거리를 좁혀본다.

권소영 기자 <thdud3079@gmail.com>

Q.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부산대학교에서 학부(91학번)와 홍창희 선생님을 모시고 임상 석사(95학번) 과정을 마쳤습니다. 석사 후 부산의 다수의 대학에서 심리학 강의와 정신과 병원 외래에서 정신보건 임상심리사로 활동을 겸하다가 2002년 캐나다행을 선택했습니다. 남편의 직장으로 텍사스의 휴스턴으로 내려오게 되어 Texas A & M 대학에서 학교 심리학, 세부전공으로는 아동청소년 임상신경 심리학으로 박사를 마쳤습니다. 휴스턴의 대학에서 심리학 강의를 해왔고, 임상 경험을 하며 느꼈던 것들을 바탕으로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심리학을 소재로 한 글을 쓰고 있습니다.

Q. 책을 집필하시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의를 하는 동안 강의실에서 배운 심리학 이론이 개인들의 생활을 돕는 살아있는 공부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가르치는 입장에서 미술과 심리학을 연관지으면 개인의 삶이 조금 더 풍부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과 예술 작품들을 대할 때 심리학을 적용하면 작품 감상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소에 미술관 가기를 즐기고, 외국 생활을 하다보니 미술작품들을 대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회화를 자주 보다보니 회화의 흐름과 심리학의 계보가 교차하는 지점도 발견하게 되어 무척 반가웠지요. 그렇게 중요한 전시가 있을 때나 시간이 날 때 조금씩 써 두었던 글을 우연히 출간 제의가 들어와 엮게 되었습니다.



Q. 「미술관에 간 심리학」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심리치료를 할 때 저는 치료자의 입장이었는데요. 그림을 보면서 위로 받고 힘을 얻었던 경험, 즉 제가 내담자가 되어 미술관이 심리치료실로 변한 경험을 독자들에게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심리치료실을 찾아가는 목적은 결국엔 본인의 아픈 이야기를 털어놓고, 공감과 위로를 받아 힘을 얻고 살아가기 위한 거예요. 상담자나 심리치료사들은 대화로 그 작업을 돕는 조력자들입니다. 미술관에서는 예술작품과 화가들이 시각언어를 사용하는 치료사가 된다고 생각해요. 미술 작품에 공감한다는 것은 화가와 긴밀하고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고, 결국 그 작품을 창조한 화가에 감정적임 한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나의 자아가 타인에게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으시는 독자들께서 스무 명의 화가들과 글 속에 간간히 등장하는 글쓴이인 저의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21명의 존재만큼 자아가 확장되는 것 아닐까요?

Q. 요즘 미술 작품 창작도 치유적 힘이 있기 때문인지, '힐링 미술', '미술 치료'라는 용어들이 낯설지 않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임상적 관점에서 미술 작품 감상과 창작의 치료적 함의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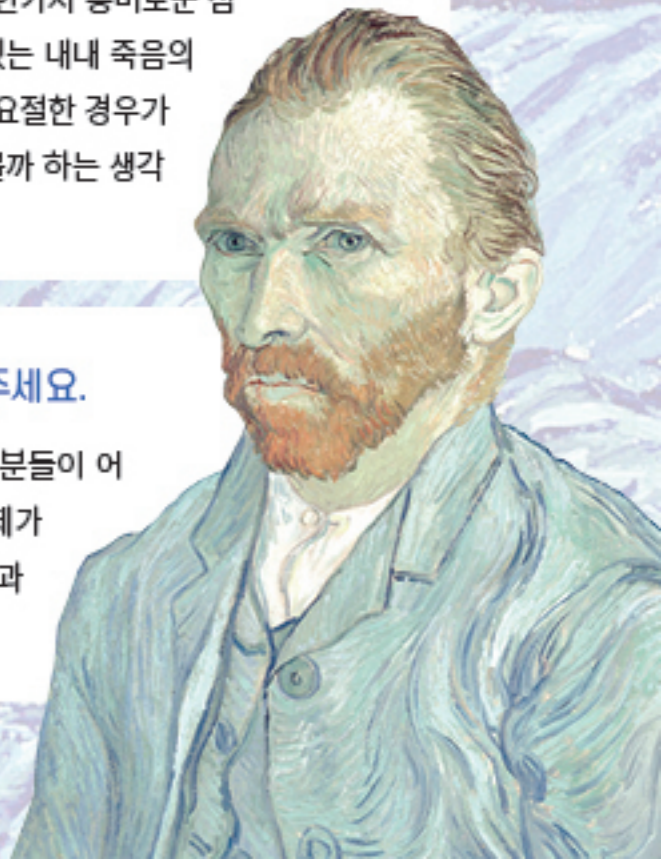
치료자의 입장에서 환자의 그림은 진단과 치료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주제통각 검사나 로샤 검사는 내담자의 내면을 들여다보려 한 시도라고 할 수 있죠. 임상현장에서 환자들에게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면 자신의 문제, 가장 좋아하는 것, 당연한 욕구 같은 것들을 그림 속에 반드시 표현합니다. 환자들은 그림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도 하고, 자기 문제에 대한 통찰을 갖기도 합니다. 감상자의 입장에서 예술 작품에 공감할 때 저 또한 심리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곤 했습니다. 그래서 미술은 적극적인 창작 행위이든, 수동적인 감상 행위이든 상당한 심리치료적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캐나다와 영국에서는 미술작품을 감상할 때 생기는 마음의 이완작용과 공감이 갖는 치료 효과를 인정하고 예방적 접근의 일환으로 의료 정책에 이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과 미술관이 협력해서 가정의가 환자 상태에 따라 미술관 관람을 처방하면, 환자들은 무료로 미술관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료 정책의 도입처럼 미술 감상의 행위는 상당한 정신의학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Q. 자신의 내면을 표현할 수 있는 다른 활동들에 비해 그림 그리는 것이 가지는 특별한 효과가 있나요?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림으로써 생각이나 감정을 가시화하는 작업들이 내면을 명료하게 만들고 정리한다는 점과 결과물에 대한 성취감은 동일합니다. 아울러 글을 쓸 때 문장을 여러 번 고쳐 쓰는 것처럼 그림을 그릴 때도 같은 대상을 수십 번 정확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 모두 자신과 거리를 둬으로써,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내 생각에 매몰되지 않게 한다는 점도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끼는 치유 효과는 말할 것도 없구요. 타인에게 전달될 때는 그림이 글보다 시간이 덜 들고, 색깔이 있으니 화려하고 재미있죠. 기분도 좋구요. 조금 다른 이야기이지만, 작가와 화가들을 비교했을 때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화가들은 장수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피카소, 샤갈, 모디스 할머니는 한 세기를 살았고, 심지어 살아있는 내내 죽음의 공포에 떨었던 몽크도 여든 넘게 장수했습니다. 대조적으로 글을 쓰던 작가들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거나 요절한 경우가 많았어요. 한 때는 유명 작가들과 화가들의 생애 요인들을 찾아내고 비교해서 그 차이의 근원을 규명해볼까 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이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어떤 의미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미술과 심리학은 우리 생활에서부터 시작되고, 생활 도처에 깔려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음에도 많은 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제 삶을 도와주기도 하였고, 배운 것을 널리 알리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미술과 유익한 심리학이 만들어 낸 성과들을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쉽게 읽히는 책이 되도록 노력했고 올림이 있는 책으로 기억되었으면 합니다.



Healing의 심리학 열한 번째 이야기 Part. 2



마음 연구실

: 시간과 감각·삶과 사랑에 관한 18가지 심리실험

저자: 이고은

아직도 심리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심리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 독심술에 대한 질문을 하곤 한다. 하지만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말해주듯 한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조차 매우 어려운 건 사실이다. 이토록 알기 힘든 사람의 마음을 심리학은 어떻게 연구할까? 심리학은 인간의 행동과 심적 과정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핵심은 심리학이 '과학'이라는 것이다. 최근, 인지심리학 전공자인 이고은 박사는 여러 심리학 실험들을 엮어 사람들의 정서, 생각, 행동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책, 『마음 연구실』을 출간했다. 이번 심리학 이야기에서는 『마음 연구실』의 저자인 이고은 박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저자의 생각과 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권소영 기자 (thdud3079@gmail.com)



Q.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심리학과에 박사후 연구원이자 강사인 이고은입니다. 저는 우리학교, 그러니까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06학번입니다.

Q. 책을 집필하시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요?

어릴 때부터 글을 잘 쓰는 과학자를 동경해 왔어요. 어렵고 전문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쉽고 심지어 재미있게 글로 쓴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싶었죠. 저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막연히 꿈꿨습니다. 그러다 그게 내가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게 된다면 대중적인 글을 쓰는 일을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어요. 운이 좋게도 박사과정 동안에 한겨레 과학 매거진, <사이언스 온>의 '심리실험 톺아보기'라는 코너에 심리학 실험에 대한 글을 연재하게 되었죠. 그 후로 라디오 프로그램들에 출연도 하고, 신문에 칼럼을 쓰는 등 여러 활동들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런 활동들을 계기로 지금은 이런 책도 집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Q. 출간하신 「마음 연구실」이라는 책은 어떤 책인가요?

이 책은 제가 전공한 인지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심리학 교양서예요. 심리학이 사람의 마음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인 만큼, 이 책에는 마음을 과학적으로 연구한 대표적인 심리학 연구들과 제가 수행했던 여러 실험 내용들이 담겨있습니다. 특히, 심리학이 무엇인지, 심리학 실험들이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 등의 이야기들을 쉽게 전달하려고 노력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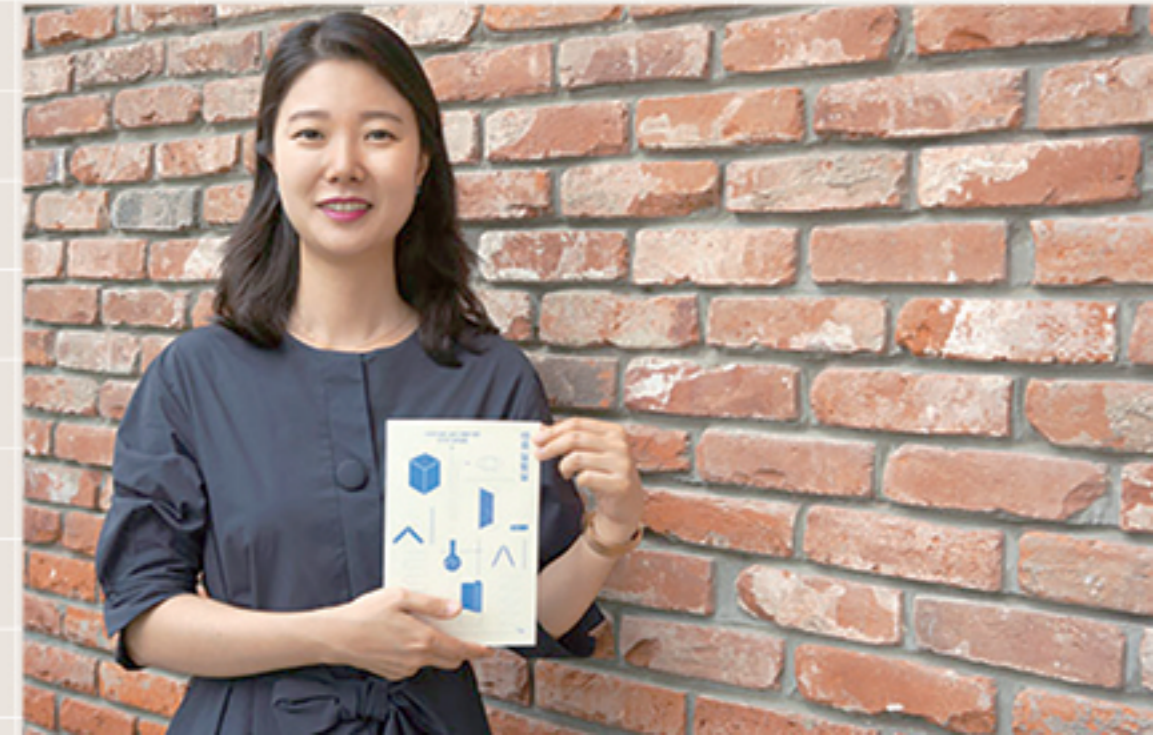


Q. 책에는 다양한 심리학 주제들을 18가지 이야기로 풀어주셨는데, 혹시 수록된 실험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실험이 있을까요?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어렵지만,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노인의 인지능력 회복과 관련하여 성차를 알아본 연구가 기억에 남아요. 이 연구는 '삶의 연구실'이라는 제목의 2부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 실험의 데이터를 분석하며 마음이 아파서 기억에 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성 노인들의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여성 노인들이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까 걱정되는 마음에 최선을 다해 회복하고 싶어했던 마음이 잊혀지지 않아요. 연구 결과는 '노인의 인지능력 저하를 막으려면 남녀 노인에게 다른 방식으로, 다른 시기에 임상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그치지만, 이 결과가 알려주는 다양한 메시지는 지금 '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노인 연구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리고 적응해야 할 미래의 모습을 현재로 앞당겨 생생하게 보여주는 연구니까요.

Q. 마지막으로 이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전하고 싶나요?

먼저, 독자들이 심리학을 과학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매우 복잡하고 동시에 귀하기도 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소중할수록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독자들이 알아주길 바랍니다. 이렇게 소중한 마음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과학 말고는 없으니까요. 또 한 가지 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마음이 각자의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존중 받아 마땅하다는 것이예요. 책을 다 읽고 스스로를 긍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독자들의 마음에 남는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어요. 그런 뜻에서 저의 책, 『마음 연구실』을 감히 추천합니다.



심리부검 | Psychological autopsy

자살자가 생전 남긴 글이나 지인과의 면담 자료를 수집해, 자살에 이르기까지의 행적과 심리상태를 파악하는 작업이다. 심리부검을 통해 규명된 자료들은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최근 유명 연예인의 안타까운 자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건 바로 '심리부검(Psychological autopsy)'인데요, 심리부검은 자살자가 생전에 남긴 글(유서, 일기장), 지인과의 면담을 통해 자살에 이르기까지 한 행적과 심리상태를 파악하여 사망자의 가는 길을 애도하고, 또 다른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것까지를 목표로 합니다. 심리학도로서 더 관심을 갖고, 나와 내 주변을 살려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도서를 추천합니다. :) 김찬미 기자 (mi00179@naver.com)



심리부검
나는 자살한 것을 후회한다
저자 서종한

이 책은 죽은 사람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간 그 길이 적어도 나중에는 사람을 살리는 길로 변화되기를 바랐던 마음의 소산이다. -p.11

전문가들은 "한번의 자살 시도도 심각한 수준의 질환이므로 첫 시도 당시 전문의를 찾아야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미 자살 시도가 있었던 40명 가운데 정신 건강 의학과에서 충분한 진료를 받은 사람은 6명(15%)에 불과했다. -p.65



심리부검
사람은 왜 자살하는가
저자 서종한

사망자가 세상을 떠나도 자신이 살았던 흔적까지 함께 가져가지는 않는다. 그 흔적은 그가 살아간 장소, 죽음을 택한 장소, 그리고 그와 함께 살아온 사람들의 마음속에 뚜렷하게 남아있다. 유가족과 대화하고 망자의 삶을 더듬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견뎠는지, 왜 극단적인 행위를 선택했는지 그 동기와 배경을 만나게 된다. -들어가는말 중

2020년 1학기 심리학과 학사 및 행사일정

2월 신입생 OT, 가족엠티, 학위수여식

3월 개강총회, 신입생 복학생 엠티

프시케 스토리 기자단



박사 19학번
권소영



석사 19학번
조동민



석사 19학번
이수현



석사 19학번
김찬미



석사 19학번
이대교



15학번
구경모



15학번
박성인



17학번
황수정



18학번
최서윤



18학번
오한별



18학번
이고은

그동안 프시케스토리는 창간호를 시작하여 이번 12호까지 매 학기마다 하나씩 출간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열심히 만든 프시케 스토리는 이제 심리학과 페이스북 그룹 페이지와 학과 홈페이지(<http://psy.pusan.ac.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읽어주시고 좋은 아이디어나 더 알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알려주시고 프시케 스토리에 꼭 좋아요 눌러주세요!

